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47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서문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특별히 매일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하고 참 안식을 찾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도 하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잃어버린 자, 약한자, 눌러 있는 자를 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마리에 모든 값어치를 두고 계신다.

이 책을 쓴 한가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의 상한 몸을 치유하고자 한다. 나의 한가지 소원은 당신이 이 책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6:47 에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맞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은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오늘이 바로 구원 얻을 때요 자유 함을 얻을 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주시며, 당신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목차

- 제 1 장: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21
- 제 3 장: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열매
- 제 4 장: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 제 5 장: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제 1 장: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이슈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일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창조하였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꼭 죽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가진 죄책감과 피해의식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나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종과 국가 그리고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듣는 질문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첫 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첫장이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성경의 중요한 약속인 요한복음 6: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간단한 약속은 마치 황폐하고 마른 땅에 생수를 주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며 죄인들조차도 소망을 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절이다. 예수는 구원자 이시며 이는 그의 구원의 말씀들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 그는 인간을 구원하셨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하면서 첫번째 장을 이어가고 싶다. 만약 당신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당신의 삶에 무기력하고 지은 죄들이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을 붙잡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 이시며, 그는 지금 당장 당신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당신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왜 예수께서 이 땅이 오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디모데전서 1:15)

사실상, 예수의 이름 자체 뜻은 "구원자" 혹은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21 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알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이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닌 반드시 예수를 100% 구원자로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그가 만유의 주, 주권자 또한 선생이 시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를 다른 분이 아닌 구원자로 인정해야 한다. 누가복음 2: 11 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니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주이시며, 또한 그가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는 주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구주가 되기로 결정하셨다. 예수는 만유의 주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종이 되기로 하셨다.

우리는 그를 구원자로 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를 구원자로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사실상, 성경은 구원 받은 이들은 한때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과 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2:1 와 로마서 5:10)

이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수님은 회개 할 수 없는 자들을 살리려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을 살리려 오셨다. 죄인은 전혀 힘이 없고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혹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지 않은가? 혹시 당신의 인생의 삶은 자유 함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지 않은가? 혹시 당신은 죄와 죄책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길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말 전혀 다른 새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오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7)

이것은 성경에서 주어진 가장 간단한 약속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약속을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누가복음 18:16-17)을 가질 때 볼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4: 21)

우리가 만약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마음에 힘과 사랑, 충성 그리고 평화가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리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나는 당신께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내하기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요한복음 6:47 에서 발견한 약속에 대해 이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언제 받는지, 누가 주는지 또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나는 이 네 가지 요점에 대해 빠르게 훑고 간략하게 이 약속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우리가 이 말씀 속의 5 가지 분야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죽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적이며, 죽음의 힘은 죄이다. (고린도전서 15:56)

인간은 죽음과 비난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생은 구원이다. 그래서 첫 장에서 이 구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려고 한다. 그 후에야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중요성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구원은 무엇인가? 나는 영생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것에 대해서 2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자 한다.

첫째, 영생은 좋다. 인생은 좋다. 이 부분은 어떠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둠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만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두움과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진정한 삶은 좋다.

둘째로, 영생을 소유한자는 부족함이 없다. 삶은 좋다. 하지만 영생은 무한한 행복이다. 이 무한함 속에는 죽음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생을 가졌기에 무엇인가를 잃을 두려움 일이 없으며, 무한한 행복을 소유했기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수 있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이 삶의 힘을 볼 수 있다. 이 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5:11 와 5:20)

즉,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자,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사실이고, 불변하며, 흠이 없고, 축복되었으며, 고결하며, 사랑스럽고, 모든 좋은 것들을 붙일 수 있다.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영생의 깊이, 넓이, 높이, 폭은 측량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서 "가졌다"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이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소식이다. 구원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보라, 지금이 기쁨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린도후서 6:2)

아멘. 우리의 구원의 날은 오늘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광이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영생의 완벽성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구원의 자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진실로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을 초월하고 땅의 영광의 하늘의 영광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구원의 영광의 힘과 권능을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 약속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후에 법이 따라왔다. 그렇다면 그 법이 약속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17 에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

사실상, 99% 이상의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모든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21)

사실상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별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6:47 와 누가복음 14:25 의 말씀은 서로

반박하고 있다. 진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25-33 에서 말씀하신 데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요한복음 6:47 말씀을 믿을 때, 누가복음 14:25-33 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자.

많은 사람들과 사단은 우리로 부터 이 약속을

빼앗아가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로마서 4:21)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시자 신실하고 진실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산 그의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6:47 에 가르쳐주고 계신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이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에 관한 기초를 다지고 중요한 의미를 보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약속에 대한 영향과 응용을 보도록 하자.

이 모든 것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기에, 그 중에 가장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평화, 사랑, 신뢰와 우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이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얻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부이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로 그를 신뢰한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구원은 낭만적이 거이며 우리는 그 영혼의 파트너와도

같다.

요한은 그의 첫 서신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었다"고 요한일서 5:1 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구세주를 붙잡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심을 믿는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자 소원이다.

가장 달콤한 시간 중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꿈을 꾸고 형제 자매들과 그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일이다. 우리는 그의 몸 안에 하나이며 교회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의 안에 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나는 아래와 같은 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천장의 글보다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의 부활과 재림의 완전함을 기다리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 가까워 지시기를 바란다. 그를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내려놓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도록 하시고 우릴 도우시며 우릴 감싸 안으시고 참 평안을 주시네 나의 침상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할 때도 그는 도우시네 우리 함께 모여 그에게 감사하자. 함께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자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를 알아가며 기다리자.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들 지라도 다른 것보다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자. 그는 우리를 서게 하시고 지탱하게 한다. 그는 항상 아름다우시기에 기쁨의 눈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의 아름다움은 빛나며 그는 깨끗하고 순결하시다. 신성한 마음; 그는 언제나 좋으시고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분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삶이고 그는 생명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가소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눈부시기에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소서. 나를 기다리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해주소서. 당신은 나 없이 견딜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주소서. 나는 샤론의 꽃이고 풀밭의 백합이라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당신의 목전에서 영원히 거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부다. 만약 그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엉뚱한 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거대한 바다에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다시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함께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말하길 "괜찮아, 우리는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할 것 같다. 이 말은 즉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떨어져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가? (히브리서 9:28 과 베드로 후서 3:12)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시고 그는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다. 영원한 삶을 받는 우리로써,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체는 완전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큰 영적 존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크고 당신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예수를 가졌고, 당신의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소유했다.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단지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약속의 효과(영향/결과)로 넘어가도록 하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힘을 받게 된다. 만약 당신이 영원한 삶을 소유했다면, 어떤 것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영생을 소유했다면, 연약해질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겠다. 영생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고 하셨다(고린도후서 13:4)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로마서 6:4-5)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다! 성경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갈 2: 20 과 골 1: 27) 이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후부터 우리의 삶에 연약함에 대해 핑계할 거리가 전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된 것을 알아야 한다.

천 가지의 말들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항상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함을 믿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5: 17

"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6:45 에서는,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이것은 또 이사야 54:13 에도 쓰여져 있다. 너의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네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이사야 54:17 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놀라운 유업에 대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우울증과 죄과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떠한 무기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져있다. 어느 누가, 어떤 것이 우리의 의식을 상하게 하는가?

혹시 비난을 받고 있는가? 혹은 당신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가? 죄책감이 드는가? 불가능하다.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할 것이라." 혹시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는가? 혹은 계속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의가 노력 혹은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값없이 주님의 유업으로 받았다. "주님의 종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의 종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할 수 있는가?(요한복음 1: 12)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유업을 받았다. 혹시 당신은 유업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무언가를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 아들이 유업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아버지의 기분은 어떻겠나? 아버지의 기분은 정말 형편없을 지도 모른다. 이 기분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도 같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을 때 말이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연약함과 불신앙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의 선함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여러 와인을 고를 수 있게 준비했는데, 당신은 딱딱한 빵과 진흙투성이의 물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붙잡자. 혹은, 폭력으로 그 유업을 붙잡자. (마태복음 11:12)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2 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다. 우리는 힘을 얻었다. 로마서 1:16 의 다른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신 혹시 구원이 필요한가? 혹은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가? 혹시 당신이 아무 힘도 없다면 그 말은 즉 구원을 체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만약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종류든지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완전해 졌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치상의 완전함"을 얻었다. 이 위치상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

이 교리의 가르침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지만 아직도 죄악을 가지고 있다. 교리는 우리에게 신자들은 그들의 삶이 점점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상대적인 완전함"의 단계까지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궁극적인 완전함"은 우리가 부활한 영적인 육체와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다.

위의 교리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도,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완벽한 영적인 육체를 받기 전까지 악한 상태에서 점점 덜 악한 상태로 변해간다는 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리는 정말 쓰레기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악에서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18) 이 상태가 죄악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상태가 아닌가?(요한복음 8:33-36) 만약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어떠한 어두움이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어떤 불완전함을 우리가 갖고 있겠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당신께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근거를 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수많은 리스트의 성경구절을 보여주고 크리스천은 진실로 완전하고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요한복음 6:47 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고 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과 상관없기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사실상 나는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죄에 빠집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이러한 사실에 반박한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한 자유 함이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게 하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만약 당신이 계속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죄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의인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당신을 죄인으로 본다면, 당신의 죄악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대신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함으로 복음을 낮게 생각하는데서 당신의 죄악이 올 것이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아닌 율법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

만약 예수님께서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부인 할 수 있는가?

하늘과 땅이 부정해도, 우리는 믿을 것이다.

당신의 눈이 보는 것과 귀가 듣는 것과 상관없이, 믿어라!

당신의 마음과 양심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믿어라!

악한 영들이 당신의 귀에 속삭여도 믿어라!

어떠한 핏박이 당신에게 닥친다 해도, 믿어라!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을 통해서 온전해 졌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한번쯤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 이 것은 죄의 죽음이 아닌가?

로마서 6:1-11 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말한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생명은 살았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는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가 자꾸 죄가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믿고 우리의 죄를 매일 매주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의 죽음 전에 구약에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한다.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매일 그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 (히브리서 10:1-3, 10:11)

예수의 죽음은 한번에 영원히 온전한 희생이 되어주셨다. (히브리서 10:14)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고 소용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하시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책감의 양심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는 구약에서 언약을 잡았던 인물들보다 더 나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 (히 7: 22)

그래서, 겁쟁이처럼 살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전에 언급한 완전성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가끔 오해하거나 혼동하기도 한다. 완전성에서 말하고자 한 의미는, 죄가 없음이다. 죄는 율법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죄 없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다. (요한일서 3:4) 하지만, 율법을 성취함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다 (로마서 13: 10)

우리는 고린도후서 3:18 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말하고 있다.

(죄의 상태에서 적은 죄의 상태로 변하는 상태가 아닌)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랑의 상태에서 더욱 사랑의 상태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나는 현재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감에 따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점차 변해가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서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완벽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붕 뜰지도 속기 쉽기에 조심스럽고 위험한 주제이다.

하지만, 붕 뜰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상,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인간 개인개인이 거룩해지거나 죄가 없어짐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몸체(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다.(사도행전 20:28, 에베소서 5:25-27)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께서 개인의 의에 관해 극히 적은 관심을 가지셨으나, 오로지 그의 관심은 성도들의 온몸에서 발견되어지는 의와 완전함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에 성도 개인은 궁극적으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점차 완전한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엡 4: 12-13)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온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완전함의 부분에 결론을 짓자면, 궁극적인 완전함과 영광은 개개인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요한복음 17:23, 히브리서 11:40) 그렇기에 많은 신약 성경의 계명들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34, 로마서 13:8, 에베소서 5:1-2, 요한일서 3:11 등) 예수님의 주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완전한 몸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님의 아들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7:23-24) 모든 신자의 몸체가 하나로 완전해 지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인 완전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천사 장만큼 거룩해지고, 예수님 자신만큼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그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할 것이다.(고린도 전서 12:26)

사실상, 인간 자신은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천사 장처럼 기록하다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필요하고, 한 몸체에서 모든 파트가 필요하다.(고린도전서 12:20-27) 모든 멤버들은 각기 동등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몸체의 모든 멤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소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서로에게 채우는 것이다. (에베소서 4:15-16)

마지막으로 약속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쉼을 얻고 사랑하기 위해 참 자유를 얻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영생을 가질 때, 당신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다. 더욱이, 당신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쉴 수 있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나중에 이야기 하고 싶은 테마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께 쉼과 사랑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하고 싶다. 쉼의 자유는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초청을 통해서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 하신다. 쉼은 직접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서 4 장에 구원은 하나님의 쉼과 연결돼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의 7 번째날 쉬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쉼 속에 들어가 우리의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4:4,10) 힘들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풀고 쉴 수 있다. 구원은 영원한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안식을 아는 자들 영원히 소리칠지이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나는 마음의 평화와 잔잔함을 아래의 이사가야 26 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있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와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평안함과 잔잔함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평안의 상태로 지켜달라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기에 신실하시다.

하지만, 안식은 굳이 의무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쉬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은 긴급상황일 때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다른 신자가 정말 필요로 할 때이다. 다음 자유는 바로 사랑의 자유이다. 요한일서 4:10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는 사랑의 자유를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자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받지 못한 인간 모두 사랑하는 사랑이다. 어떻게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져가셨다. 많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들은 그의 사랑이 그저 음식과 다른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 구절은 명백하게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의 아들을 먼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닌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알아가고 우릴 향한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다.(요한일서 4:7-21) 이 상태에서 바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길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멸할 수 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은 완벽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랑의 자유함을 받았다. 주님 앞에 정죄를 두려워할 이유나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까 혹은 배신당할 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자유 함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제는 내가 4장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다.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열매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 첫 번째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움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즉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느 때나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당신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했던 혹은 무엇을 하고 있던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 살도록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요한복음 6:57)

예수님의 이름이야 당신이 오직 알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 분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요한일서 5:20) 그는 신실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일 점 일 획이라도 이루신다. (누가복음 21:33) 그는 공짜로 여기부터 지금까지 그의 구원을 베푸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당신이 무엇을 했던지 상관없다.

보답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라. 전과 후에도 어떠한 조건이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 그는 항상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쓰는 내용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혹시 당신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당장 당신이 어느 곳에 있던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0:10)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당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유업에 참여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 글을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받아드리길 간구한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악이 없으며, 더 나은 쉼, 선, 그리고 사랑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예수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에베소서 4:13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 하라 그리고 말씀을 믿어라!

더 이상 겁쟁이가 될 필요가 없으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담대히 주님을 믿어라!

주님께서 명백하게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

이 책의 다음 두 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처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더욱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은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생의 약속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더욱이, 영생의 결과는 모두 자유, 영광, 능력, 평안,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에 기초를 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보물들에 대해서 이 책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혼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형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 13 와 고린도후서 5:17) 우리는, 그러므로, 새 형상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이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들은 무엇으로 공급해주어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 신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한다. 아이를 잘 기르면, 그 아이는 잘 자랄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잘못 기르면, 그는 불행해 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해, 나는 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관심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하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시작 개념이다. 더욱이, 바울은 골로세서 2:6 에,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같이 그 분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간단한 대답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 (요한복음 1:12, 요한일서 5:1)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불신앙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어긋나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믿지 못하겠다면 하더라도, 그냥 믿어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그대로를 수용하실 것이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이렇게 조언하고 만다는 것이다.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나타나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저도 계속 기도할게요."

이 말은 즉 복음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기도하고 믿음 받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6:2 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오늘이다. 기도하고 기다릴 필요 없다. 그냥 믿고 만약 당신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또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핑계되지 말고 다른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허락된 시간이다. 보라. 오늘이 구원 얻을 날이로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면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추어 진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원망, 핑계, 죄책감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값을 돌릴 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혹은 겁쟁이로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죄와 책임 그리고 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은 기쁘게 "알았다"라고 하신다.

이것에 관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 이다. 그분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 우리는 그를 섬기지 않는다. 그가 우리를 섬긴다. 또한 우리가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닌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만약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어딜 가지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는 그분께서 구원자 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다리도 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누군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인간의 자존심은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구원의 때에, 이웃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의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은 맞지만, 자기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잊어도 좋다. 모든 사람을 잊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자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45)

이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믿음에 많은 이기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같이 그 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믿었고, 그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적던 많던 간에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 믿음의 수준이 크던 적던, 사실상 그것은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 구주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큰 믿음도 없기에 당신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모든 존재와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가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자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아무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새신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들은 구원자를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구원자를 보고 믿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의

말씀을 믿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린다.

그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눈은 별과 같이 반짝일 것이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그들은 구주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숨이 자 삶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새 신자들은 쉽게 속고 넘어지고 깨진다. 약한 바람은 그들을 한번에 날릴 수도 있다. (에베소서 4:14)

이 새신 자중에 몇은 속고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틀린 가르침을 받아 속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11: 13-15)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새 신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특색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 받는 것이다.

그들의 가치는 지구의 모든 나라보다 더 값비싸고, 어떤 지구상의 생명체보다 더 존귀하다. (마태복음 18:14)

절대 그들을 상처주지 말 것은 그들의 천사가 천국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항상 지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10)

이 작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고, 그의 생각은 항상 이들을 향해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귀한 사슴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 받는 자들이요. 누군가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신다.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어른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도 같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안다. (히브리서 5:12-14, 고린도전서 3:1-2 그리고 에베소서 4:14)

어떠한 이들은 어린 기독교인으로 많은 날들을 보내며 전혀 자라지 않는다.

세상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 없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교회들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만왕의 왕께 감사하는 것 이외에 성경공부, 소규모 모임, 기도 모임, 지역 전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선교 사역과 사회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신자를 양성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 사역이다.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세계에서 가장 관심 받고 존귀하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하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 새 신자들은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자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은 명백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한가지 예를 들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이의 문제에 대한 마음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안다. 이 한 청년은 그의 삶에서 공허를 느끼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에 확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의 모든 삶은 변하였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구세주에 대해 꿈을 꾸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성경 공부임을 알았다. 그 후에 "만약 당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청년은 성경 공부를 나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의 입문 과정임을 알았다. 몇 주의 공부가 끝난 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새 출발하는 그는 모든 것이 대단하게 보였다. 그는 교회를 자주 나갔고, 십일조를 드리고, 다른 크리스천 친구들과 교제를 즐기고 소규모 그룹에 자주 참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또 공허가 찾아왔다. 그는 그의 우울증과 불만족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혼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죄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죄 때문에 온전한 자유함을 찾지 못했다. 그는 정확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동했다. 또한 그는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지도 몰랐다. 몇 친구들에게 조언을 부탁했고,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목사님과 면담을 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죄 해방은 없으며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란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성경책을 더 읽으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마침내, 몇 주간 뭔가를 잃은 것 같았던 그는 크리스천으로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고, 회개하며,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결정했다.

그의 마음에는 드디어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는 다시 몇 달간을 살았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기복이 있는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사실상 참 자유를 얻지 못했다. 대신, 이 이야기의 끝으로 이 청년이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속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 야속, 전도에 대한 삶의 목적을 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그는 마침내 안식과 참 평안을 찾았다. 맞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과 같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청년은 "첫 사랑을 즉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이 청년은 처음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는 복음을 믿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를 믿었는가? 그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 자유와 영생을 주심을 믿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청년은 참 자유, 평화, 안식을 얻었다. 그는 거룩해지고 그의 얼굴은 빛이 났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것들"과 같은 주와 부가 바뀌었다. 그는 믿었지만, 속았다. (누가복음 8:13). 그의 속임은 그가 성경공부와 세례를 제의 받았을 때부터이다. 이 말은 성경공부나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구세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구세주를 누려야 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교회의 기본적인 운영과정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더 치우쳐 구세주를 잊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그분께서는 먼저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 하지만 그는 선생님이 먼저 되었고 두번째로 구원자가 되셨다.

그 결과, 그는 속았고, 그의 구세주로 부터 멀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청년은 예수 안에서 거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삶이 시작되고, 삶이 계속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영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또 경고하셨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한복음 15:6)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더 강조하며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다는 증거는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 우울증과 감정 기복이 심하고 죄에 잡혀, 항상 아프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청년처럼 계속 흔들린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믿는 데서 온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부분이다.

교회에서는 종종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들"을 새 신자에게 가르치면서 정말 필요한 일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누가복음 10:38-42)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를 더불어 새 신자들이 이러한 일에 눌리고 짐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들 중에 몇은 교회에서 교회로 다른 교회들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이러한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순간들과 기쁨을 말씀해줘야 한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해야 할 부분은 딱 한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오직 구원자라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과 그의 구주에게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 신자들이 시험들과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재앙과 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은 그들은 방황의 상태 가운데 아니면 단순한 종교 행위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새 신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들을 보자.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만약 인간이 영생을 얻었다면,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전 글에서 언급했지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일 5:20)

우리는 영생을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얻었다. (요 17: 3)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기독교의 삶이 만약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보통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니라. 그래서, 그 분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이 새 신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불행히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뿐더러 복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들의 삶은 그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삶'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진실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수고이다. 이 사랑의 시작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함께 영혼이 회복되고 자라는 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 새 신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역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사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어떻게 안식할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이 구원 받았던 정확한 "때" 모르는 것을 알았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구원자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의 때를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

제 3 장: 당신의 영혼을 양육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첫 열매

이 장의 제목처럼, 이 장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양육하는 살아있는 첫 열매에 대해서 요약하고 나누고 싶다. 당신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어떻게 인간은 한번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간단하다. 할 수 없다. 혹은, 어떻게 사람이 한번도 그의 삶 속에 예수그리스도의 기쁨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또한 그 사람이 한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고 안식을 얻은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이 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지고 편안해 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회복하게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자들에게 가장 최고로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참된 안식, 기쁨, 확신, 사랑, 자유, 힘, 정의를 체험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새신자들은 안식과 좋은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좋은 가르침을 받으며 건강하고, 힘있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되고 많은 신자들이 그들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 부터 열매 맺기를 바란다. 하지만 씨가 나무가 되기 전에 혹은 다른 식물로 자라기 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씨에게 햇빛, 물 그리고 땅으로 부터 오는 영양 공급이 충분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햇빛, 물 그리고 양분이 필요하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고 숨쉬고 자신을 만들어 진다. 그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열매를 맺게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는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나에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처음에, 이것이 마치 알맞고 영광스러운 소원같이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새 신자가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사역하는 것 전에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삶을 사역하시게 해야 한다. (요한복음 13:4-8)

예수님께서 열매는 주님께 거하므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나는 "거하라"라는 말씀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머무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찾고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그 안에 안식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가 일하시기 전에,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제 1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는 사실성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그의 모든 삶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나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해간다. 이 삶은 그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지의 한 부분인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여지면 그 안에 거하면서 선함에서 선함으로 바뀌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그의 형상으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선하시기에, 우리도 그안에 선하게 만드신다. (요한일서 4:17)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지금, 혹시 이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소명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 30년 동안에 평범한 직업으로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는 3년반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눌린 자와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하여 배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거룩하고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0년이라는 삶 동안 은혜, 지혜와 아버지의 힘 안에서 자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마 11:28-30)

나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6에 말한 말씀을 좋아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2:6) 다른 말로 하자면, 일꾼들은 다른 이들의 열매를 관리하는데 쓰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들 자신이 먼저 선하심의 열매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22-23 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믿음, 온유, 절제니라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첫 열매를 체험해야 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첫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예수를 믿는 모든 열매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반복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괜찮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첫 열매들은 안식과 배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선함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더해져, 기독교 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토론에 넘어가기 앞서, 완전히 집중하고 이해하길 돕는 매우 중요한 확인을 하고 싶다. 위에 언급한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열매들은 같은 근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근본은 예수님과 복음이다.

이 근본에 대해 깨달아지면 사실상 우리는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열매의 근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께 있다면, 예수의 선하심과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필요하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실제적이다. 믿음은 삶에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열매는 믿는 자의 결과다: 그러므로, 열매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순전히 학문적 토론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열매는 구주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종종 보는 것과 사는 것이 매우 다르다. 우리가 가진 공통점은 모두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항상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

이것을 알면, 나는 몇 분들이 시험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몇 분이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믿는 자들의 열매에 집중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큰 확신, 인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기 이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의 구원의 열매에 대해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그리스도안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몇 가지 안식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안식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거나 붙은 일의 강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심지어 손가락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또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안식의 특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하는 자유를 준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큰 안식이다. 이것은 또한 영혼의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과 강요가 있는 곳에 절대 완전해 지지 않는다. 율법과 강요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로마서 4:15, 요한일서 4:18)

이러한 안식에 의미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나의 대답은 간단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조건에 관계 없이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6:47, 로마서 3:28, 로마서 4:5-6)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4:4) 나의 요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의 이유를 갖은 게 아니라 안식의

자유함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안식의 자유 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 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의 풍부함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이 영적인 안식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안식은 우리의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구주 예수를 믿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선생님이로 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을 그 앞에서 허용되고 당연하게 발견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의 허용과 상금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를 위해 일하고 진정으로 그를 향한 경배의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예로, 우리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100% 구주로 섬길 때, 우리는 그가 주시는 조건 없는 자유 함에 안식하고 두려움과 방해 없이 복음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고 구원의 완전함을 체험하고 받을 때에 그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삶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새 생명을 가져다 주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배우고 복음의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에 어떤 정도의 기본적 지식이 우리를 동요되게 만들 때가 있다. (엡 4: 14)

또한, 배우고 복음에 확실한 곳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호감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47 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구원은 다음 생애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닌, 지금 생애에 누릴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누릴 가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16 에 쓰여진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의 죄와 적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능력을 주며 당신이 두려움 없이 모든 삶에서 거룩함과 공의 함으로 온전히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누가복음 1:74-75)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 10) 이 풍성한 삶의 힘은 오직 전달 받은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처음부터 꺼내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슬프게도 활동들과 행사들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우고 복음에 확실히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그들은 다른 것을 배우는데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복음을 배워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도 못한다. 제 1 장의 페이지 8-19 쪽에 예수를 믿는 주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자신의 피로 인치신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오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설명했던 장점 중 평화, 사랑, 의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와 능력, 완벽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마음과 영혼을 상기시킬 겸 다시 읽어보도록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크리스천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하며 예수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기쁨과 사랑, 공의와 힘을 가지고 살도록 부여하신다. (요한복음 8:3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다른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선함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당신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넘치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많은 신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주로 엄격하고 벌주는 부당 주는 주인으로 생각한다. 또 이 분께서 오직 그의 법도를 지키는 소수에게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신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에 선함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대신에 반 구원자로서 제자인 것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에서 회개로 살고 있다. (그들의 고백과 회개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산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강렬한 불과도 같고, 그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정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닌 살리려 보내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만약 구원받고 영생을 체험하고 싶다면, 정말 구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 요한일서 3:16 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8-10 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게다가 요한복음 3:16 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구절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언음이라."

위에 언급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받고 믿어야 할 메시지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가져야 한다. 요한은 요한복음 4:16 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선함을 받는 것이 그를 믿는 첫 열매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릴 향한 그의 사랑은 심판이 아닌 자비와 평강과 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선함과 자비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의 자비를 배워야 한다. (로마서 2:4) 이것은 주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유산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구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되는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앎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과 사랑 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 (요한일서 4:18) 어린 신자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한다.

신자들이 매일 이 진리에 대해 세워질 때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매일의 삶이 선함과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과 역경이 있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을 살아날 것이다.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오 나의 사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기쁨이시다.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종종 그의 넘쳐나는 기쁨과 찬양,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의 기쁨과 구원 안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 세상은 악하고, 성경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흑암과 싸우고 전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4, 에베소서 6:1)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항하는 흑암들이 우리의 기쁨과 예수께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에게는 원수를 이길 힘이 주어졌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 그를 믿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로마서 8:37) 나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은 항상 그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 꿈꾸는 것을 즐긴다. 나는 그가 지금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과 별써 영광을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나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나는 영광 중에 모든 신자들이 모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주님을 마주볼 그날을 꿈꾸며 기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나갈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진짜이고 힘들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 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14-18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들은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 그는 그의 친한 기독교 친구가 참여한 장례식에 간 이야기를 했다. 그 장례식장에서, 참여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기독교 장례식에 익숙치 않았던 그 형제는 그들의 친한 친구가 죽고 장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에 놀랐다. 그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에 그의 가장 친한 형제에게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 물어봤다. 그 형제가 대답하길, 모든 사람이 그 친구의 죽음에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신자들과 다시 교제할 그 날을 믿기에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 형제의 요점은 이 삶 속에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 안의 우리의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다. 그리고 예수 안에 기쁨과 힘을 구별하지 해야 한다.

맞다!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그의 안에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항상 이 기쁨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깨닫는 첫 열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소 평가 하지 말아야겠다.

요한일서 3:23 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이 말씀은 오직 아이들만이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 된다!

제 2장에 쓴 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간단히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바울은 "옛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은 또 그의 첫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13)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숨을 쉰다.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다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가 말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면 저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분께서는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이시다.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 (로마서 13:10) 게다가, 예수그리스도안에 우리가 읽는 말씀 한가지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갈 5:6)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이다. 잃어버린 곳에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잃어버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 안에서 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도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35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 다음과 같이 비슷한 결론을 내셨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 21) 우리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더 어렵거나 큰 것은 없다. (요한일서 5:3) 만약 신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되고 완전해질 수 있으며 불신자들도 세상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23)

결론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크리스천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방법, 시스템, 행사들은 크리스천을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첫 열매를 보았다. 크리스천의 첫 열매는 진실로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이들이다. (요한일서 2:12-14) 하지만,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잘 먹지 않고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크지 못할 것이다. 이 장에서 많은 새 신자들이 힘을 얻고 깨달아 세워지길 기도한다.

이 장과 그 전의 내용들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서론과도 같다. 다음 두 장에서는 우리는 심지어 더 세밀한 기독교인의 삶을 점검해보려고 한다. 네 번째 장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신자들로부터 계속 크리스천의 삶을 볼 것이다. 요한일서 3:23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제 4 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안에 사랑의 수고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짐은 거대하지 않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선하시고 또 아주 가볍다. (마태복음 11:28-30 과 요한일서 5:3) 이것을 알게되는것은 예수 구주에게로 부터 열매 맺고 신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확실히 해준다.

우리가 벌써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사랑의 모든 수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수고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부터 나온다. 갈라디아서 5:6 에 쓰여진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신약에서는, 할례받는다는 의미가 종종 모세의 율법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대표적 표현으로 쓰인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할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구절을 통해 할례를 받는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이익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 이 말인즉슨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혹은 은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말로 하자면, 다른 이들은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속에 살고자 스트레스 받는 면에 어떤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구절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처럼, 은혜의 교리안에 잘 세우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에서

예수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 장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더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간단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장을 시작함으로써,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대로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것에 대한 선을 확실히 분명히 해두고 싶다.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은 성경의 몇가지 구절들을 통해, 모든 자에게 사랑의 우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신약성서의 충격적인 말씀들을 같이 보길 원한다. 이 구절들을 통해, 종교적인 행위, 열정,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첫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7:21-23 에 쓰여진 것이다. 이 구절에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가정하건데 귀신들린 자를 쫓아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즉 "많은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무서운 구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가? 이 성경 구절에 나왔던 이들의 모습은 완벽한 제자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다. 어떤 이들이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눈으로 볼때 그들은 주님앞에서 놀라운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가장 높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이들을 가리고 아마도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몰랐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그저 일꾼들에 불과하다. 두번째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5:20 절이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수 없느니라."(마태복음 5:20)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전도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참된 것을 따르고 경건케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많은 평범한 이들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완벽한 제자로 보일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의가 그들은 거짓쟁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만약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다시말해, 정확히 예수님께서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였는가? 다른말로 하자면, 예언, 악령쫓기, 놀라운 기적, 희생, 기도, 성경공부, 율법지키기,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을 뜻하면 엘리트중에 최상의 엘리트로 생각했다. 만약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벌써 알고 있기에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이 기억하고 중요성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23)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큰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는 당신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위해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관심이 없다. 가장 관심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고 서로서로 상호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이름대로, 우리의 가장 옆에 있는 교인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잃어버린 가난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깨달았을 때 나는 굉장히 놀랐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명백한 구절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역하라고 몇번이고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누가복음 22:24-26, 요한복음 13:13-17 과 요한복음 13:34-35)

예수님께서 주셨던 친숙한 예화에 대해 예를 들고자 한다. 마태복음 25:31-46 에 찾아볼수 있을 것이다. 이 예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신자를 향한 영광스러운 것은 이 예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좋은 사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알수 있다. 마태복음 25:31-46 는 굉장히 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용하였다. 이 예화는 모든 이들에게 친숙하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쉽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을 볼수있다. 괜찮다. 나도 그렇기에. 하지만 31-32,37,40,44-45 에는 특히 집중으로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린다.

25:31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 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 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33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 두고 34 왕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35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37 그때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39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 보었나이까?'라고 하리라.

40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41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44 그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리니 45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46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많은 시간과 시간을 드려서 기도하고 생각한다. 이것을 해야 하나요 저것을 해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요 왼쪽으로 가야 하나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성경을 더 읽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찬양팀에 들어가거나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도를 해야 하거나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해야 한다. 혹은 또 십일조를 더 드려야 한다. 아마도 주님의 뜻은 내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마도 전도 현장에 더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위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가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31-32 절) 예수님께서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0 절에 밝히고 계신다. "40: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작은 자에게 향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은 즉 교회의 힘없고 약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무능하고 가난하며 다 앓고 아프며 소외되었다.(35-36 절) 자세히 이 구절을 읽다보면 심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온전히 만약 너가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의 또 한 구절을 같이 보고 싶다. 누가복음 9:46-48 절이다.

46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47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다른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작은 예수의 형제를 받는 자만이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동정이 필요한 예수님의 약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다. 이것은 정확하게 바울이 한 말씀과도 일치한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3-25)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자를 도와 몸을 강하게 해야 할것이다. (로마서 15:1, 갈라디아서 6:2) 예수님께서서 크리스천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21) 만약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와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멀리있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 고통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생각할수 있는가?

먼저,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으면 모든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9 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소망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큰자보다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 그는 강한 기독교인들보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체의 완전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만약 우리보다 강한자가 있더라도 강한자가 약한자를 돕도록 하자. 예수님은 비슷한 구절에서 이와같이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2-13)

만약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고자 했을때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대로에 놓였을 경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걸지 않는다. 이 명령을 성취하고자 할때는 그 이유도 있다. 그 이유는 어려운 크리스천을 돕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에 항상 그들은 옆에 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며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다. 친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들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 구주를 아는 지식안에서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구주는 각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47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를 믿는 믿음안에서 살아갈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의 사랑에 자라나게 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수 있는 사랑의 삶속에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31-46 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흥미로운 것은 의인은 의인같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27)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선한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큰 계획이나 꿈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이들에게 해야할것 바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만약 우리 중에 강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교회안에 친구들을 돌려보게 하라.반드시 그중 필요를 하는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건데 그중에 정말로 사랑에 궁핍한 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약하고 고통중에 있는 자들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중 어떤이들은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이들은 그냥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돈이나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자신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 예수 구세주가 당신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도움을 주실 줄 믿는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의인들이 의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동일하게 의인이 아닌이들도 의인이 아닌 자들에게 무지하다. 악한 이들도 대답하며 예수님께 말했다.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악인 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살았고 어떤 업적을 삶속에서 이루었는지와 전혀 관계없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백하고 분명했다.

"작은 자에게 한것이 무엇이냐?"

말을 맺으며,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23)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밀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교회 모든 목적, 꿈, 크고 작은 비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놀랍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믿고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지루하고 바보같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만약 방법과 비전, 꿈과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쌓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지 말자. 그의 복음은 간단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한복음 6:47) 그의 마음은 간단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제 5 장: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인 그의 교회에 대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17:20-24 에 우리를 향한 그의 목표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21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22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4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소망이 그의 몸체인 믿는 자들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구절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몸체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다.

이 전 장에서, 우리는 주로 개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체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고 싶다.

특별히, 요한복음 17:20-24 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의 교회에 관한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그 자신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전도하기 위한 목표, 즉 우리를 통해 하나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은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배우는 결과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원하는 것이다. 어떠한 영광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되게 할수 있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서로 사랑안에서 완전함을 입은 한 몸으로 변해간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신 독생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고 배웠다. 나의 의도는 이 모든 장에서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의 세가지 소망을 설명하는 것이다. 시작함으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교회를 가족과 같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0:36, 히브리서 2:12, 그리고 갈라디아서 3:26)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이다.(히브리서 2:13-14)

예수님의 가족은, 모두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약한자를 강한자가 돕는 것이다.(행 2:44, 행 4:32, 고전 12:18-27) 예수님의 가족은, 큰자가 약한자이고 약한자가 큰자이다.(누가복음 22:25-27) 예수님의 가족은, 분열이 없으며, 모든 멤버들이 그를 알고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되심을 안다.(고린도 전서 12:25, 고린도전서 12:18-27) 그는 우리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한다.(요한일서 4:15-16) 그래서, 모든 것을 보았을때, 우리가 하나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결정권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자유함에 따라 살게 하셨다. 사랑에 위해 서로를 섬길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전 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정체이다. 이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수 있을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이 점에서, 전장에 언급했던것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점을 그리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무게는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국적, 인종, 성별, 가족, 문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교육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더 크시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우리의 교파를 초월한다. 잠시 어떤것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99.9%의 불일치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구주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야 할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다른 것을 말하면 안되고 다른 것을 알아서도 안될 것이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입술에서 종일 불리지고 구주를 아는 모든 이들과 친교는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를 향한 원네스가 형성 되는 것이다. 나는 관련되지 않은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관련되지 않은 교회란 말은, 무서운 이단,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단, 소속, 다른 교리의 가르침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한다면, 교회를 심고 자라게 하는게 초점이 아닌 현존하는 교회를 돕고 치유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나는 종종 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교회 전략들이 계속 만들어 지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원하신다고 믿는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시길 원하신다고 믿는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한다고 믿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가 자라나는 데 초점을 맞추길 원하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방법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사랑의 수고를 할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미 교회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당을 짓는 것이다. 먼저 있는 교회당을 돕는게 맞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지만 힘들어하는 선교지와 교회당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러한 약한 교회들에 예수님의 약한 형제들로 가득차지 않았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영예롭다. 생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준비를 하시고 병들고 상처받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는 모든 인류를 멸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다. 이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멸망시키는 것보다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이다.

물론 때때로 먼저 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계시록 2-3 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힘을 주고 살아나길 원하신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키 위해, 구약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자. 출애굽기 32:7-14 와 32:30-35 에서 찾을 수 있다.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삼상 12:20, 삼하 16:12

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때문에 멸망시키고자 하여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나대로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멸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새롭고 거대한 땅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수 있겠는가? 어떤 바보가 감히 불순종 할 것인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소명은 실수 많았던 값어치 없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진게 아니라 더 나은 강국의 지도자로서 이루어 질수도 있었다. 우리는 모세가 겸손하게 그의 부르심과 비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저함 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해달라고 도전했다.

모세는 주님께 자비를 구했다. 모세는 병들고 상처받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백성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온맘다해 그들을 위해 빌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마시고, 먼저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십시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그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32 절) 모세는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지옥의 고통으로 죽겠다고 했다.

이 불순종한 나라는 주님의 이름앞에 다시 살아나고 구원의 가치를 얻었다. 우리는 모세가 가진 마음을 가져야 겠다. 어떠한 비전과 소명을 우리 교회가 가졌던 간에, 사랑은 무한하게 크다.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하지만..제발 지금 현존하는 교회를 치유하십시오. 새롭고 더 나은 지도자가 아닌. 주님, 지금 현존하는 지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회복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소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7:20-26 과 요한복음 13:34-35 의 말씀을 비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여진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수고다. 즉, 머리서 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으로 가득차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의 머리는 우리가 평화롭게 완전한 조화를 서로 이루고 수고 할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에베소서 4:15-16)

교회안에 하나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다. 만약 우리 개인의 교회가 사랑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다른 교회에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할 것을 배우기 전에 작은 일부터 해야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는가? 그러므로, 사랑은 작은 교회로 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몸전체로 퍼져나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저절로 다른 교회로 퍼져나가 결국에는 전세계로 나갈 것이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될 때,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며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13:34-35 와 요한복음 17:21-23 에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18-20 와 비교해 보며 요한복음 13 과 17 을 보도록 하자.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가지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18-20의 구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큰 사명에 대해서 여겨진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누가복음 24:47와 마가복음 16:15을 참조하라.)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28:18-20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이 구절을 읽는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주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의 계명들은 우리가 그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를 믿는 순간 모든 선한 것 예를 들면 세례, 거룩함, 기도, 선한 일, 전도가 따라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믿음의 수고는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이 이유때문에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 우리에게 사도의 서신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 바울의 서신들로부터 유다의 서신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아라. 전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수고를 백번 넘게 이야기했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도들이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다. 그들의 간절한 간구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진리로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서로에게 진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진실하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가 되자.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교회에게 신실하시다.

(행 2:44-47)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간단한 메세지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오게하기 이한 방법이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생각할수
있는지가 필요한게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의 말씀은 신실함을 믿자. 서로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교통하는 것을 보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속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24 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오, 얼마나 진실로 사랑스러운가!
우리를 향한 영혼의 사랑! 그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녹는다! 바울이 말하길,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빌립보서 1:2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의 소망이다. 즉, 그의 머리를 뜻한다! 머리없는
몸체를 상상할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세상의 바탕을 둔 우리의 운명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이 성경구절은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진
곳이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비유한 것은 과장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해 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최고의 생각과 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예수님 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이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5:2-8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앞으로 올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계속 자라고 자라야 한다. 교회인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되며 우리의 마음은 탄식하며 "오소서, 주님"(계시록 22:20)이라고 외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 몸이 머리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손과 발 없이는 완전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2:3-27)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우리의 머리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영원한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베드로후서 3:12)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의 세상에서는 두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완전히 거대하고 온전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언약을 믿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한복음 6:7) 우리는 다른 것을 할게 아닌 오직 그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약속을 인치셨다. 그는 살아나시고 또 우리의 구속의 시간에 간절히 기대하게 하셨다.그가 사셨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수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세상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세상 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찮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불신자들의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에게는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그럴지라도, 아멘."(계시록 1:7)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보다 이 날을 가장 기다리자. 어떠한 것이 소중할지라도 이에 대한 핑계를 만들지 말자. 그의 재림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원하신다. 그는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고 그의 재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오신다. (히브리서 9:28 와 디모데후서 4:8)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뒤쳐지지 말고, 모든 지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자.

이것은 창조되고 창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의 간절한 기대이다. (로마서 9:19-25 와 요한복음 17: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계시록 22:20)

거의 2000 년동안 주님께서는 천국과 그의 온전한 몸을 준비하셨다.(요한복음 14:3, 에베소서 5:25-27) 그는 모든 준비를 하셨고 주님의 도우미로서 그와 함께 이 준비에 참여하자. 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가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담대하고 용기를 갖자!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우리 모두가 약하고 짐이 많다는 것을 아신다. 또 그는 우리 모두가 그의 약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모두 잊지 않으셨다. 그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선하시고 우리 미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수 있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힘을 내서 그를 더 바라고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까지 그를 소원하자. 그의 어린 아이들로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의 아들앞에 믿음과
순수함으로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아시고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시어라. 나를 믿는자는 살았고
영생을 얻었느니라."(마태복음 11:28 와 요한복음 6:47)
이 책이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모든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에게로 향하길 바란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로 오라. 어서 빨리 오라. 아멘

